

小説 《三國志》의 書名 研究

민 관 동*

<목 차>

1. 序 論
2. 소설 《삼국지》의 시대별 서명 목록
3. 소설 《삼국지》의 서명과 유형 분석
4. 서명의 작명 원리와 변형 원인
5. 結 論

1. 序 論

《三國志》라고 불러야 할까? 《三國演義》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三國志演義》라 해야 할까? 이처럼 小説 《三國志》에는 수많은 서명이 있어 다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또 영문으로는 《The Romance of Three Kingdoms》라고 하는 로맨틱한 이름도 있다.

필자가 찾아본 小説 《三國志》의 가장 짧은 서명은 3字로 된 《三國志》이고 가장 길은 서명은 21字로 된 湯賓尹校正 《新刻湯學士校正古本按鑑演義全像通俗三國志傳》(一名 湯賓尹本)이었다. 왜 이렇게 많은 異名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얼마나 많은 小説 《三國志》가 중국에서 출간되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생겼다. 즉 현존하는 최초 판본인 元代 建安 虞氏

*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kdmin@khu.ac.kr)

의 《三國志平話》부터 시작하여 明代 및 清代 末期까지 출간된 판본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판본목록을 근거로 시대별 서명 목록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 알려진 판본은 明版이 30여 종이고 淸版이 70여 종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해 보니 明版은 대략 40여 종이나 되었다. 이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본이 발굴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 70여 종이 된다는 청판은 모두 조사할 수가 없어 약 40여 종 정도만 샘플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明版은 비교적 희귀본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기에 연구 논문을 통하여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으나, 모종강본이 나온 이래 淸代 中・後期는千篇一律적으로 모종강본을 근거로 출간하였기에 서지적 가치가 적다보니 따로 연구한 학자도 드물고 수집 정리한 자료도 부족하여 부득이 필자가 한·중·일 각 도서관에 소장된 고서목록 자료를 근거로 서명목록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小說 《三國志》의 서명과 유형 분석을 시도하였고 특히 연의계열과 지전계열 그리고 기타 書名과 異名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찰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명의 작명 원리와 시대별 변화분석 및 변형원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2. 소설 《삼국지》의 시대별 서명 목록

서명분석에 앞서 얼마나 많은 소설 《三國志》가 출간되었나 하는 문제가 선행과제이다. 조사결과 元代는 2종 明代는 40여 종 淸代는 약 70여 종이라고 추정된다. 필자는 특히 서지적 가치가 높은 명대 판본을 위주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2.1 원대 소설

현재 확인되는 小説 《三國志》의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판본이 建安 虞氏의 《三國志平話》이다. 그 외 실명씨의 《三分事略》이 있다.

(1) 《三國志平話》: 이 책은 원나라 至治年間(1321-1323)에 출간된 판본으로 원명은 《新全相三國志平話》이다. 이 책은 上圖下文(위그림 아래문자)으로 되어 있고 한 면이 20行 20字로 되어 있다. 총 3권(상[23]·중[24]·하[23]) 70則으로 되어있으며 현재 일본 내각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2) 《三分事略》: 이 책은 별칭으로 《三國志故事》라고도 하며 대략 至元(1335-1340)年間に 복건에서 출간된 坊刻本이다. 총 3권(상중하)로 되어 있으며 上圖下文과 한 면이 20行 20字로 판식이 《三國志平話》와 유사하다. 저자는 알 수 없고 현재 天理大學에 소장되어 있다.¹⁾

2.2 명대 소설

小説 《三國志》의 본격적 시작은 역시 기본적인 틀이 완성된 羅貫中の 編纂本 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판본은 대략 40여 종인데 다음은 이들의 書名과 出版者 및 판식 그리고 출간년도와 소장처를 조사하여 정리한 도표이다.²⁾

1) 오순방의 역, 《中國古典小説總目提要》, 울산대출판부, 1993년. 86-95쪽 참고.

2) 본 도표는 孫楷第, 《中國通俗小説書目》(臺灣 廣雅出版社, 1984年. 35-44쪽), 周兆新 主編, 《三國演義叢考》(北京大學出版社, 1995年. 56-62쪽), 김문경, 《삼국지의 영광》(사계절출판사, 2002년. 273-275쪽), 정원기, 《최근 삼국지연의 연구동향》(중문출판사, 1998년. 144-162쪽) 등과 기타 출판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番 號	書名	出版者・堂號/ 序文	略稱	卷冊・則回/ 行字	出刊 年度	所藏處
1	三國志通俗演義	庸 愚 子 序 (1494)/張尙德 序	[嘉靖本] (張 尙 德 本)	24卷・240則 /9行 17字	1522	北京圖書館・ 日本文求堂・ 商務印書館.
2	新鐫通俗演義三國 志傳	夷白堂	[夷白堂本]	24卷・240則 /9行 17字	萬曆年 間	日本慶應大
3	三國志通俗演義	殘本1冊(卷8上 下) 丙子字	[朝鮮古字本]	12卷・240則 /11行 20字	1560 初中	韓國:李亮載所 藏
4	新刻校正古本大字 音釋三國志通俗 演義	周曰校・仁壽堂 (萬卷樓)	[周曰校本]	12卷・240則 /13行 26字	乙 本 :1591	北京大・日本內 閣文庫等
5	新刻校正古本大字 音釋三國志傳通 俗演義	周曰校甲本・朝 鮮覆刻	[朝鮮覆刻本]	12卷・240則 /13行 24字	1627 推定	韓國清州博物館 等
6	新刊校正古本大字 音釋三國志傳通俗 演義	夏振宇・官板三 國傳	[夏振宇本]	12卷・240則 /12行 25字	明末	日本蓬左文庫
7	新鐫校正京本大字 音釋圈點三國志演 義	鄭以禎・寶善堂 梓	[鄭以禎本]	12卷・240則 /14行 30字	明末	商務印書館
8	古今演義三國志			12卷・240則	明末	據[也是園目]
9	新刊通俗演義三國 志史傳	元峰子序・葉逢 春	[葉逢春本]	10卷・240則 16行 20字	1548	스페인왕립도서관
10	新鈐全像大字通俗 演義三國志傳	劉龍田・喬山 堂・李祥序	[喬山堂本]	20卷・240則 /15行 25字 (兩側33字)	1599	옥스퍼드大・九 州・嶺南大
11	新鈐(鏤)全像大字 通俗演義三國志傳	笈郵齋 *喬山堂 本同版	[笈郵齋本]	上同	萬曆年 間	옥스퍼드大
12	新刻按鑒全像批評 三國志傳	余象斗・雙峰堂	[余象斗本]	20卷・240則 /16行 27字	1592	옥스포드대・캠 브리지박물관
13	新刊京本校正演義 全像三國志傳評 林	余象斗・雙峰堂	[評林本]	20卷・240則 /15行 22字	萬曆年 間	와세다大學
14	新刻湯學士校正古 本按鑑演義全像通 俗三國志傳	湯賓尹校正	[湯賓尹本]	20卷・240則 /14行 22字	1595 以後	北京圖書館
15	新刻京本補遺通俗 演義三國志傳	熊清波・誠德堂	[誠德堂本]	20卷・240則 /14行 28字	1596	臺灣古宮博物院・日本成實堂 文庫等
16	重刻京本通俗演義 按鑒三國志傳	楊春元・楊閩齋	[楊閩齋本]	20卷・240則 /15行 28字	1610	日本內閣文庫・ 京都大
17	新鐫京本校正通俗	鄭少垣・聯輝堂	[聯輝堂本]	20卷・240則	1605	日本內閣・蓬

	演義按鑑三國志傳			/15行 27字		左・尊經閣, 成 實堂文庫
18	新鐫京本校正通俗 演義按鑑三國志傳	鄭世容 *聯輝堂 本同版	[雲林鄭世 容本]	20卷・240則 /15行 17字	1611	日本京都大
19	新刻音釋旁訓評林 演義三國志史傳	朱鼎臣編輯・王 泗源刊	[朱鼎臣本]	20卷・240則 /14行 24字	萬曆年 間	하버드大
20	新鐫京本校正按鑑 演義全像三國志傳	熊冲宇・種德堂	[種德堂本]	20卷・240則 /15行 26字 (兩側34字)	萬曆年 間	北京圖書館
21	新刻按鑑演義全像 三國志傳	劉興我・忠賢堂	[忠賢堂本]	20卷・240則 15行 27字(兩 側 35字)	明末	日本名古屋大
22	新鐫音釋評林演義 合相三國史志傳	熊佛貴・忠正堂	[忠正堂本]	20卷・240則 /14行 20字 (兩側 30字)	1603	日本叡山文庫
23	新刻京本按鑑演義 合像三國志傳		[天理本]	20卷・240則 /15行 22字 (兩側 32字)	明末	天理圖書館
24	新刻全像演義三國 志傳		[北圖本]	20卷・240則 /15行 29字 (兩側 36字)	明末	北京圖書館
25	精鐫按鑑全像鼎峙 三國志傳	劉榮吾・藜光堂	[藜光堂本]	20卷・240則 /15行 26字 (兩側 34字)	明末	大英博物館
26	考訂按鑑通俗演義 三國志傳		[九州本]	20卷 240則 /14行 23字	明末	日本九州大
27	新刻京本全像演義 三國志傳	與畊堂・費守齋	[費守齋本]	20卷 240則 /14行 23字 (兩側 33字)	1620	日本東北大
28	新刻考訂按鑑通俗 演義全像三國志傳	黃正甫・博古生 序	[黃正甫本]	20卷・240則 /15行 34字	1623	北京圖書館
29	二刻按鑑演義全像 三國英雄志傳	書林魏口口(畏 所?)刊	[魏某本]	20卷・240則 /15行 28字 (兩側 35字)	明末	北京圖書館
30	二刻按鑑演義全像 三國英雄志傳	美玉堂刊	[美玉堂本]	20卷・240則 /17行30字(兩 側 37字)	明末	獨逸[魏瑪]
31	新刻按鑑演義全像 三國英雄志傳	楊美生	[楊美生本]	20卷・240則 /16行 29字 (兩側 36字)	明末	日本大谷大
32	天德堂刊本李卓吾 先生評三國志	天德堂・吳翼登 序・楊美生本出	[天德堂本]	20卷・240則	明末	根據[日本寶歷 甲戌船載書目著 錄]

33	精鑄合刻三國水滸全傳	雄飛館熊飛刊.	[雄飛館本]	20卷・240回 /14行 22字	崇禎年間	內閣文庫・京都大
34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	明建陽吳觀明刊本	[吳觀明本]	120回 /10行 22字	明末	北京日本蓬左. 文庫大圖書館
35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	吳郡蔡光樓植槐堂刊	[蔡光樓本]	120回 /10行 22字	明末	東京都立圖書館
36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眞本	吳郡寶翰樓刊本	[寶翰樓本]	120回 /10行 22字	明末	未詳
37	鍾伯敬先生批評三國志	鍾伯敬先生批評	[鍾伯敬本]	20卷・120回 /12行 26字	明末	東京大
38	三國志	遺香堂	[遺香堂本]	24卷・120回 /10行 22字	明末	東京都立中央圖書館
* (39) 二酉堂本 / (40) 하버드대학본 미확인 ³⁾						

이상 명대에 간행된 판본은 대략 40여 종으로 확인된다. 40여 종 가운데 묘하게도 書名이 서로 겹쳐지는 판본은 거의 없다. 이는 출판사간 서로 서명의 중복을 피하고 차별화하려는 의지가 역역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120회의 이탁오비평본이 나오기까지 대부분은 24卷 240則・12卷 240則・20卷 240則・10卷 240則으로 卷數와 則數가 나누어지는데 그중 대부분은 20卷 240則의 판본이 40여 종 가운데 20여 종이나 점유해 절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 行數와 글자 數는 9行 17字의 嘉靖本과 16行 20字의 葉逢春本에서 확인되듯 동일한 판본은 거의 없다. 비록 서로 모방을 하여 출간하였지만 서로 다르게 차별화한 결과이기도 하다.

출판시기는 1522년의 嘉靖本과 1548년의 葉逢春本이 비교적 이른 판본이고, 그 후 1591년의 周曰校本과 1592년의 余象斗本이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그 이후에 간행된 판본으로 확인된다. 또 판본 간에도 유사한 판본이 발견되는데 즉 喬山堂本과 笈郵齋은 同一版이고 또 聯輝堂本과 鄭世容本도 同一版으로 확인된다.

또 나관중이 편찬한 최초 240則 시대에서 120回本 시대로 넘어온 이후에 두드러진 현상으로 李卓吾批評本・鍾伯敬批評本・李笠(李漁)批評本・金聖嘆評等 유명인의 批評이나 序文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상업적 영리를 목

3) 1-38까지는 실체를 확인했으나 39와 40번은 어떤 판본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적으로 꾸며낸 僞託이다.

그리고 도표에 언급된 略稱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嘉靖本처럼 출간년도를 따서 지칭한 케이스와 出刊者나 批評者의 이름을 딴 케이스로 周曰校本·葉逢春本·夏振宇本·鄭世容本·湯賓尹本 등이 있고, 출판지나 서재에서 연유된 夷白堂本·喬山堂本·聯輝堂本·楊閩齋本 등이 있다. 또 쌍봉당에서 출간된 여상두본의 케이스는 각기 다른 판본이기에 중복을 피해 余象斗本과 書名 《新刊京本校正演義全像三國志傳評林》의 끝에서 따온 評林本으로 약칭된다. 그리고 명대의 판본들은 현재 대부분 외국으로 유출되어 타국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 일본에 소장된 것이 가장 많다.

그 외 국내에서 丙子字로 1560년대 초·중기에 인출한 朝鮮活字本은 나름 상당한 의미를 지닌 희귀본이며, 또 대략 1627년 경 周曰校 甲本을 覆刻出版한 朝鮮覆刻本 또한 서지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2.3 청대 소설

* 청대에 출간된 판본은 대략 70여 종으로 추정된다.

番號	書名	出版者·堂號 ·序文	略稱	卷冊·則回 /行字	出刊 年度	所藏處
1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	吳郡綠蔭堂刊	[綠蔭堂本]	24卷 120回 /10行 22字	康熙年間	北京圖書館·日本宮內省
2	李卓吾批三國志傳	烟水散人編·嘯花軒本	[嘯花軒本]	20卷 240則	清初	未詳
3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	蔡光樓·楠槐堂刊本	[楠槐堂本]	120回 不分卷	清初	北京大·北京圖書館等
4	李笠翁批閱三國志	芥子園刊·笠翁李漁序	[芥子園本]	24卷 120回 /10行 22字	清初	北京圖書館日本京都大
5	毛宗崗評三國演義 一名：四大奇書第一種	毛宗崗評·聖嘆序·醉耕堂	[毛宗崗本]	60卷 120回	1679	北京大等

6	毛宗崗評四大奇書 第一種	毛宗崗評・三 槐堂刊	[毛宗崗本]	60卷 120回	清初	北京大・東京 大・예일대等
7	新刻按鑑演義京本 三國英雄志傳	聚賢山房刊	[聚賢山 房本]	6卷 120回 /15行 32字	1709	復旦大・東京 大・北京大等
8	新刻按鑑演義京本 三國英雄志傳	清三余堂覆明本	[三余堂 覆明本]	6卷 240則 15行 32字	清初	北京大圖書館等
9	新刻按鑑演義三國 英雄志傳		[嘉慶本]	20卷・240則 /16行 41字	1802	北京大圖書館等
10	新刻按鑑演義全像 三國英雄志傳	楊美生本覆刻 本・嘉慶	[楊美生 本覆刻本]	20卷・240則 /10行 27字 (兩側 36字)	嘉慶年 間	未詳 ⁴⁾

이상의 도표에서는 모종강의 판본이 나온 시기의 前後를 기점으로 비교적 주요한 판본 10여 종을 도표로 작성하였고 나머지는 뒤의 일련표로 작성하였다. 사실 모종강의 판본이 나온 이후 바로 모종강본으로 통일된 것은 아닌 듯하다. 청대초기까지는 李卓吾批評本과 李漁批閱本 등이 서로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시기에는 三國英雄志傳 시리즈가 일시적 강세를 보이기도 하며 주도권 경쟁에 가세하였다. 그 후 청대의 중・후기에 이르러 최종 상권경쟁에서 승리한 모종강본이 천하통일을 이루며 통행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淸初에는 간혹 240則의 覆刻本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120回本으로 정착되었다.

다음은 청대 중・후기에 출간된 판본 목록이다.

(1) 貫華堂第一才子書：毛宗崗評, 合20冊, 8行 15字, 또는 12行 26字, 刊行處未詳, 淸刊行.

(2) 四大奇書第一種：毛宗崗評, 合19卷 20冊, 12行 26字, 貫華堂, 淸刊行. / 合20卷 20冊, 12行 26字, 經國堂, 清末刊行. / 合20卷 20冊, 12行 26字, 上海掃葉山房, 1888年. / 合19卷 20冊, 12行 26字, 江左書林, 1897年. / 合21冊,

4) 그 외에도 청초에 나온 松盛堂本・繼志堂本・致和堂本・德馨堂本(鄭喬林)이 있으나 미확인이다.

11行 24字, 致和堂, 清末刊行. / 合60卷(?), 10行 23字, 九思堂, 清末刊行. / 合51卷 20冊, 12行 28字, 宏道堂, 清末刊行.

(3) 四大奇書 : 毛宗崗評, 合19卷 20冊, 12行 26字, 同德堂, 清末刊行. / 合19卷 20冊, 11行 24字, 槐陰堂, 清末刊行.

(4) 第一才子書 : 毛宗崗評, 合60卷 24冊, 10行 25字, 小石山房, 1853年. / 合60卷 16冊, 16行 32字, 錦章圖書局, 1853年. / 合60卷 16冊, 15行 30字, 同文晉記書局, 1906年. / 合60卷 16冊, 15行 30字, 時中書局, 1907年. / 合60卷 16冊, 15行 31字, 中信書局, 清末刊行.

(5) 第一才子書三國志 : 毛宗崗評, 合60卷 12冊, 25行 40字, 上海書局, 1888年.

(6) 第一才子書三國志演義 : 毛宗崗評, 合60卷 12冊, 錦章書局, 清末刊行.

(7) 第一才子書繡像三國志演義 : 毛宗崗評, 合60卷 8冊, 25行 40字, 商務印書館, 1904年.

(8) 精校全圖繡像三國志演義 : 毛宗崗評, 合16卷 16冊, 15行 31字, 上海廣益書局, 1853年.

(9) 精校全圖足本鉛印三國志演義 : 毛宗崗評, 合16冊, 15行 31字, 中新書局, 清末刊行

(10) 精校全繪繡像三國志演義 : 毛宗崗評, 合16卷 16冊, 中信書局, 清末刊行.

(11) 增像全圖三國志演義 : 毛宗崗評, 合16卷 6冊, 26行 字數不定, 刊行處未詳, 清末刊

(12) 增像全圖三國演義 : 毛宗崗評, 16卷 8冊, 煙台誠文信記書局, 1911年. / 6冊, 鴻文書局, 1888年 / 8冊, 廣益書局, 清末刊行.

(13) 增像全圖三國志 : 毛宗崗評, 8冊, 16行 32字, 刊行處未詳, 清末刊行.

(14) 增像繪圖三國演義 : 毛宗崗評, 合60卷 16冊, 15行 30字, 同文書局, 清末刊行.

(15) 增像繪圖三國志演義 : 毛宗崗評, 合16卷 8冊, 15行 30字, 文華書局,

清末刊行。

(16) 增像三國全圖演義：毛宗崗評，合16卷 8冊，26行 51字，天寶書局，1910年。

(17) 增像全圖三國志演義第一才子書：毛宗崗評，合10卷 8冊，25行 52字，天寶書局，清末刊行。

(18) 繡像第一才子書：毛宗崗評，合51卷 16冊，12行 28字，成文信，清末刊行。 / 合12冊，12行 28字，善成堂，清末刊行。 / 合19卷 20冊，12行 26字，文興堂，清末刊行。

(19) 繡像全圖三國演義：毛宗崗評，合60卷 20冊，上海蔣春記書莊，清末刊行。

(20) 繡像金聖嘆批評三國志：毛宗崗評，合20卷 20冊，蘇州綠啓堂和記藏板，清末刊行。

(21) 繡像金批第一才子書：毛宗崗評，合20冊，貫華堂刊，清中後期刊行。 / 4冊，大魁堂，清初刊行。

(22) 繪圖三國演義：毛宗崗評，合60卷 15冊，同文書局，清末刊行。

(23) 繪圖三國志演義：毛宗崗評，合16卷 15冊，鑄記書局，清末刊行。

(24) 繪圖三國志演義第一才子書：毛宗崗評，合60卷 12冊，上海掃葉山房，1894年。

(25) 繪圖通俗三國志：毛宗崗評，合75冊，11行 字數不定，日本大阪刊，1836-1841年。

(26) 圖像三國志演義第一才子書：毛宗崗評，合60卷 10冊，文盛書局，清末刊行。

(27) 三國志演義：毛宗崗評，合19卷 20冊，12行 26字，翠筠山房，清末刊行。 / 合60卷 20冊，12行 26字，錦章書局，清末刊行。

(28) 三國志：毛宗崗評，合20卷 20冊，12行，三多齋藏板，清末刊行。

(29) 三國志第一才子書：毛宗崗評，合16冊，廣益書局，清末刊行。

이처럼 대부분이 청대 중·후기에 나온 판본들이다. 청대 판본이 약 70여 종이 있다 하나 필자가 수집정리한 목록은 약 40여 종이다. 특히 모종강본 이후에는 가끔씩 淸代의 三余堂에서 明本 《新刻按鑑演義京本三國英雄志傳》을 覆刻出刊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는 간혹 나타나는 현상이고 대부분은 판권경쟁에서 승리한 통행본(모종강본)을 그대로 출간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청대 중·후기 판본은 서지학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그러한 연유에서 위에서도 서명위주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 외 소설 《三國志》의 서명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청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서명들이 출현하였지만 정리해보면 크게는 ‘第一才子書’·‘四大奇書第一種’·‘三國志’·‘三國演義’·‘三國志演義’ 형태를 가진 모종강본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또 후대에 모종강본을 가지고 여러 출판사에서 반복하여 출간을 하다 보니 출판처가 다르지만 동일 서명인 경우와 동일 출판사인데도 다른 서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⁵⁾

특히 冊數도 20冊에서 16冊·8冊·6冊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출판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목판본에서 石印本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이들의 출판지는 청대로 들어오며 江南(南京·杭州·蘇州)에서 上海로 급격히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3. 소설 《삼국지》의 서명과 유형 분석

소설 《삼국지》의 서명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단순히 서명만 복잡한 것은 아니다. 한 책의 代表書名 외에도 封面書名·版心書名·目錄書名·卷首書名과 卷末書名 등 書名이 서로 다른 경우가 非一非再하다. 본장에서는 다양한 서명의 유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5) 민관동 외 공저, 《한국 소장 중국통속소설의 판본목록과 해제》, 2013년, 31-95쪽 참고.

3.1 서명의 유형분석

제2장에서 정리한 명대에 출간된 소설 《삼국지》의 서명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동일한 서명은 드물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규칙이 있음이 발견된다. 일찍이 陳翔華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 三國志 + 傳 : 각종 志傳系統 판본
- (2) 三國志 + 通俗演義 : 각종 演義系統 판본
- (3) 複合式 - ① 三國志 + (史)傳 + (通俗)演義 : 각종 연의계열
 ② (通俗)演義 + 三國志 + (史)傳⁶⁾ : 각종 지전계열
- (4) 簡稱式 - ○ ○ ○ 批評 + 三國志 : 李卓吾本・鍾伯敬本 등⁷⁾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3) 複合式的 ① ②번은 큰 줄기에서 보면 ①번은 연의계열에 들어가고 ②번은 지전계열에 들어가기에 구태에 소분류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러한 연유에서 필자는 서명의 뿌리를 다시 분류해 보았다.

- (1) 三國志 + (通俗)演義 :
 - 【例①】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通俗演義》
 - 【例②】 《新刻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
 - 【例③】 《新鐫校正京本大字音釋圈點三國志演義》
- (2) 三國志 + 傳 :
 - 【例①】 《新刻按鑒全像批評三國志傳》
 - 【例②】 《新刊通俗演義三國志史傳》
 - 【例③】 《新刻按鑑演義全像三國英雄志傳》
- (3) ○ ○ ○ 批評 + 三國志 :
 - 【例①】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
 - 【例②】 《鍾伯敬先生批評三國志》

6) (1)과 (2)의 통합형 조합으로 陳翔華・周文業 등 학자마다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陳翔華, <羅貫中原著書名非三國演義>, 《文史知識》, 1995년 5월)

7) 周文業, <三國演義書名研究>, 《12次中國古代小說・戲曲文獻暨數字化國際研討會論文集》, 2013년 8월 28일, 18-24쪽 참고. <http://blog.sina.com.cn/lianguizhi176426>
 周文業의 <三國演義書名研究> 참고.

【例③】 《李笠翁批閱三國志》

(4) 기타 시리즈 유형 :

【例①】 《第一才子書》

【例②】 《四大奇書第一種》

이처럼 소설 《삼국지》의 유형은 크게 演義系列・志傳系列・○○○批評系列・기타 시리즈계열로 분류된다. ○○○批評系列의 서명이 나오기 이전에는 대개가 三國志傳(史傳)과 (通俗)演義 등 핵심어휘 앞뒤로 수식어가 첨가되어 부연하는 유형의 서명이 대부분이다. 그 후 李卓吾・鍾伯敬・李翁 등 批評本系列의 서명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비평본 시대를 열었고, 또 청대 모종강의 《四大奇書第一種》이 나오면서 四大奇書라든가 第一才子書⁸⁾라는 서열화 된 기획물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모종강은 소설 《삼국지》를 여러 차례 출간하면서 서명을 수차례나 바꾸었다. 즉 《四大奇書第一種》・《第一才子書》・《貫華堂第一才子書》・《綉像金批第一才子書》・《三國志演義》・《三國演義》의 형태가 된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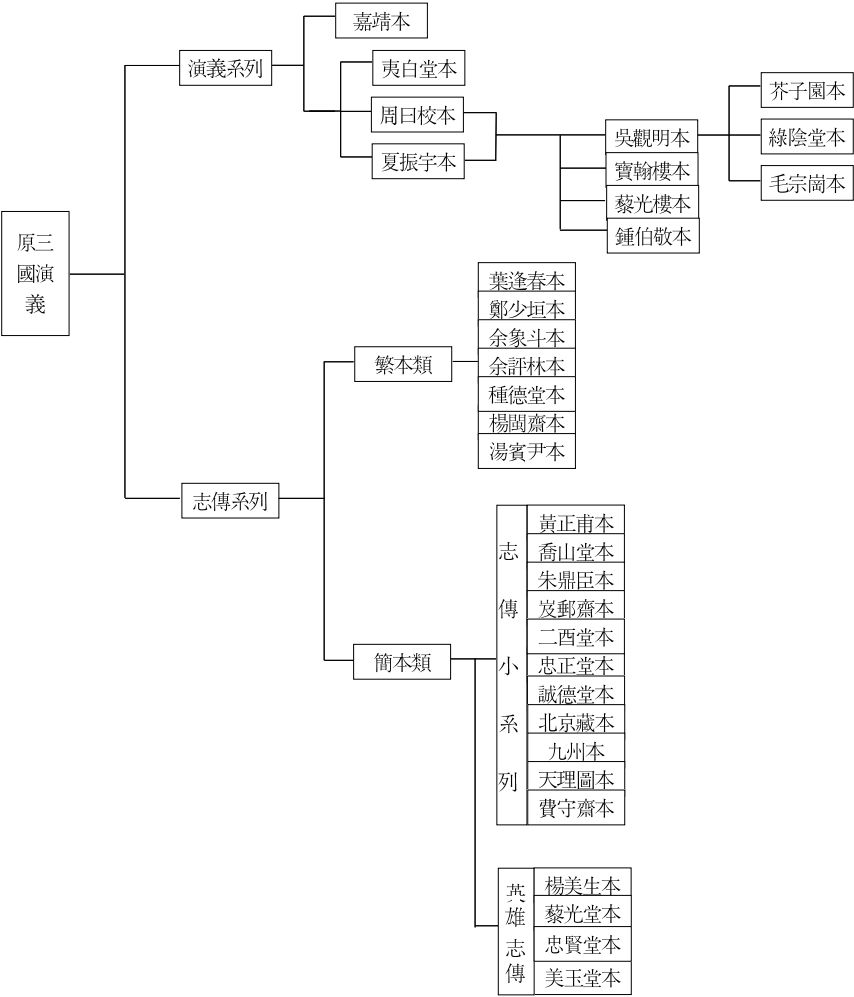
다음은 명・청대의 대표적 판본들의 분류 형태를 도표로 만들었다.¹⁰⁾

8)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서명과 이명소설 연구>, 《중어중문학》 제73집, 2018년, 83-84쪽 참고.

9) 정원기 역, 《정역삼국지》 1권, 현암사, 2008년. 서문 참고.

《貫華堂第一才子書》와 《綉像金批第一才子書》의 서명 가운데 貫華堂은 김성탄의 서재 이름이고 金批는 바로 김성탄 비평이란 뜻을 축약한 것이다. 또 서문에 聖嘆外書라는 이름을 가탁이다. 《四大奇書第一種》(康熙 18年 취경당본)은 김성탄의 序文이 아닌 李漁(李笠翁)의 서문이 실려 있다.

10) 위 도표는 周文業・上田望・中川諭 등의 분석표를 참고하여 필자가 다시 만들었다.



※ 參考：雙峯堂【余象斗】・喬山堂【劉龍田】・誠德堂【熊清波】・楊閩齋【楊春元】・聯輝堂【鄭少垣】・種德堂【熊冲宇】・忠賢堂【劉興我】・忠正堂【熊佛貴】・蔡光堂【劉榮吾】・與畊堂【費守齋】・德馨堂【鄭喬林】

이상의 도표에서 확인되듯 크게는 연의계열과 지전계열로 양분된다.

명대로 들어와 초기 수도였던 南京과 杭州 및 蘇州는 새로운 강남문화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대 이래 출판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福建地方(建陽一帶)은 江南의 출판문화에 크게 위협을 받으며 치열한 출판전쟁이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 지역의 출판경향은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강남계열은 대체로 고급스럽고 文人指向的이며 대부분의 서명이 '通俗演義'로 끝나기에 일명 '演義系列'이라 한다. 반면 복건계열은 통속적이고 大衆指向的이며 서명이 '三國志傳'으로 끝나기에 '志傳系列'이라고 한다. 또 연의계열은 보통 24卷 240則이나 12卷 240則이 주종을 이루고 지전계열은 20卷 240측과 10卷 240則으로 간행된 특징이 있다.¹¹⁾

1) 演義系列

연의계열의 대표본은 역시 1522년에 출간된 嘉靖本 《三國志通俗演義》이다. 그 외 후대에 출간된 夷白堂本 《新鐫通俗演義三國志傳》· 周曰校本 《新刻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¹²⁾· 夏振宇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 鄭以禎 《新鐫校正京本大字音釋圈點三國志演義》 등이 있다. 끝부분의 서명이 (通俗)演義로 끝나지만 夷白堂本만 예외로 《新鐫通俗演義三國志傳》으로 끝나는 특이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틀이 본격적으로 깨지기 시작한 것은 李卓吾本(吳觀明本)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와 鍾伯敬本 《鍾伯敬先生批評三國志》부터 시작이다. 또 청대에는 芥子園本 《李笠翁批閱三國志》 등이 출간되었는데 '演義'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다 三國志로 끝난다. 그러나 이 판본들의 내용과 구조는 모두 周曰校本이나 夏振宇本 계통에서 출현하였기에 系譜上으로는 演義系列로 분류된다. 이는 모종강본 역시 그러하다. 즉 이탁오본을 근거로 재단장된 毛宗崗本 《四大奇書第一種》 역시 이러한 연유에서 연의계열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되듯 小説 《三國志》의 大統은 연의류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11) 김문경, 《삼국지의 영광》, 사계절 출판사, 2002년, 199-200쪽 참고.

12) 조선시대 출간된 조선활자본 《三國志通俗演義》과 조선번각본 《新刻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 역시 연의계열로 분류된다.

2) 志傳系列

志傳系列은 書名이 대부분 志傳으로 끝나며 이탁오비평본이 나오기 이전까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志傳系列의 대표는 1548년에 출간된 葉逢春本 《新刊通俗演義三國志史傳》이다. 지전계열은 크게 繁本과 簡本으로 분류되는데, 번본에는 葉逢春本을 비롯하여 余象斗本 《新刻按鑑全像批評三國志傳》·湯賓尹本 《新刻湯學士校正古本按鑑演義全像通俗三國志傳》·種德堂本 《新鐫京本校正按鑑演義全像三國志傳》·楊閩齋本 《重刻京本通俗演義按鑑三國志傳》·聯輝堂本 《新鐫京本校正通俗演義按鑑三國志傳》 등이 있다.

簡本은 다시 志傳小系列과 英雄志傳系列로 분류된다. 志傳小系列의 주요판본으로는 喬山堂本 《新鐫全像大字通俗演義三國志傳》·朱鼎臣本 《新刻音釋旁訓評林演義三國志史傳》·忠正堂本 《新鐫音釋評林演義合相三國史志傳》·費守齋本 《新刻京本全像演義三國志傳》·黃正甫本 《新刻考訂按鑑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誠德堂本 《新刻京本補遺通俗演義三國志傳》 등이 있다.

그리고 英雄志傳系列은 간본계통의 하위분류로 제목에 의하여 나눈 것으로 같은 간본이기는 하나 간략화 방법이 다소 다르다. 영웅지전류의 대표는 楊美生本으로 등장인물의 傳記를 생략한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영웅지전계열은 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¹³⁾ 영웅지전의 대표작품으로는 楊美生本 《新刻按鑑演義全像三國英雄志傳》·忠賢堂本 《新刻按鑑演義全像三國志傳》·美玉堂本 《二刻按鑑演義全像三國英雄志傳》 등이 있다. 忠賢堂本의 경우는 封面에 《三國英雄志傳》이라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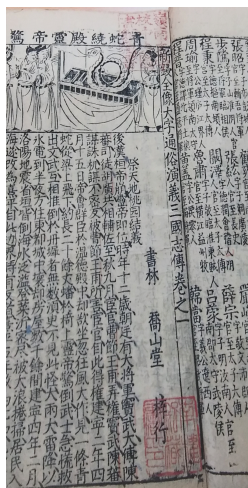
이처럼 연의계열보다는 지전계열이 판본에 있어서도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서명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3) 청대판본으로 三余堂本 《新刻按鑑演義京本三國英雄志傳》·嘉慶本 《新刻按鑑演義三國英雄志傳》·聚賢山房 《新刻按鑑演義京本三國英雄志傳》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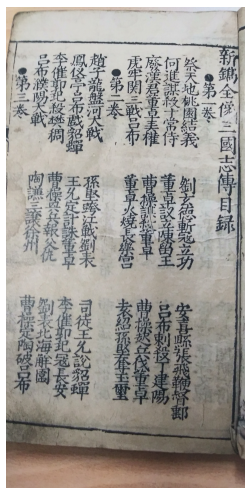
영웅지전에 대한 정보는 김문경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얻었다. 그는 지전류가 더 자세한 부분과 영웅지전류가 더 자세한 부분 등 매우 복잡하여 아직도 완전히 해명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

3.2 기타 書名과 異名

한 권의 판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유사한 서명이 붙는다. 즉 標題(서적의 겹표지에 붙이는 이름으로 원래의 서명)과 內題(卷首書名·卷末書名·目次書名 등) 그리고 版心題¹⁴⁾ 등이 있다.



* 卷首書名



* 目次書名



* 版心書名

이처럼 한 권의 책에도 書名이 동일한 書名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판본마다 각기 다른 異名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喬山堂本의 경우 版心書名과 目錄書名은 물론 人物表書名(一名 三國志宗僚)조차도 다르게 나타나고 朱鼎臣本의 경우 版心書名이 ‘全象三國傳’·‘全象三國’·‘三國志’·‘全三國’·‘三國傳’ 등 판본마다 서명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은 黃正甫本을 근거로 각종 書名과 異名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¹⁵⁾

14) 고서적의 출판과정에서, 종이의 정 가운데를 접어서 양면으로 나눌 때 그 접힌 가운데 부분에 붙이는 서명을 말한다. 조선출판본의 경우 보통 판심에 물고기 꼬리 모양의 도형이 위쪽에 있고 그 아래쪽에 冊名을 넣으며 그 옆 부분에 面數를 인쇄한다.

15) 周文業, <日本九州大學藏周鼎臣和三國演義簡本志傳小系列演化>, 《2019年第18次中國古

刊行年	明 天啓 3年(1623年)	
書名	新刻考訂按鑒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版心 書名	(全像) 三國志像	
目錄 書名	全像三國全編	
人物表書名	鐫全像演義三國志	
	卷首書名	卷末書名
第一卷	新刻考訂按鑒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二卷	新刻考訂按鑒通俗演義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三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三國志傳
第四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五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六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缺)
第七卷	新刻考訂按鑒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八卷	新刻考訂按鑒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通俗演義三國志傳
第九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十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缺)
第十一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十二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通俗演義三國志傳
第十三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缺)
第十四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缺)
第十五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缺)
第十六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十七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十八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十九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第二十卷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全像三國志傳

이상의 도표에서와 같이 서명이 卷首書名・卷末書名・目錄書名・版心書名 심지어 人物表書名¹⁶⁾ 조차도 제각각임이 확인된다. 특히 권별서명은 각권마다 일치하다가(권3-권6) 다르게 나타나는(권7-권8)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들은 版心書名이나 目錄書名 및 卷末書名 등에는 지면의 空白與否 등을 감안하여 서명 가운데 상징적인 핵심 어휘만 남기고 縮約한 것으로 보이고, 卷首 및 卷末書名은 아마도 刻手 한사람이 조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가 나뉘어 작

典小説・戲曲文獻暨數字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2019년 8월 13-16日. 별쇄본 참고.

16) 一名 三國志宗僚라고 하며 소설이 아닌 정사 삼국지의 인물에 관한 표를 정리한 것이라고 고증하였다. 沈伯俊, 《三國演義新探》, 中國四川人民出版社, 2002年. 46-55쪽 참고.

업을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그 외 다양한 造版過程의 상황에서 파생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4. 서명의 작명 원리와 변형 원인

소설에서의 서명은 대부분 작품의 내용과 연관된 것에서 추출되는데 보통 6가지 작명의 유형이 있다. ① 소설 스토리의 대강을 함축한 유형: 즉 유생들의 正史가 아닌 외적인 이야기를 묘사한 《儒林外史》, ② 소설의 주인공에서 취한 유형: 여 주인공 이름 가운데 潘金蓮·李瓶兒·紅梅에서 나온 《金瓶梅》, ③ 소설 가운데 중요한 地名(背景)을 취한 유형: 西域(인도 및 중앙아시아)을 순행한 기록에서 서명이 유래된 《西遊記》, ④ 소설 스토리의 상징성을 추상시켜 서명을 취한 유형: 《紅樓夢》, ⑤ 소설을 시리즈로 간행하며 서명을 취한 유형: 第一才子書 《三國演義》·第二才子書 《好逑傳》·第三才子書 《玉嬌梨》·第四才子書 《平山冷燕》·第五才子書 《水滸傳》·第六才子書 《西廂記》·第七才子書 《琵琶記》·第八才子書 《花箋記》·第九才子書 《捉鬼傳》·第十才子書 《駐春園》, ⑥ 續(後)書와 같은 後續物(亞流小說)에서 서명을 취한 類型: 《水滸傳》의 續書로는 《水滸後傳》·《蕩寇志》·《後水滸》·《殘水滸》·《水滸中傳》·《水滸新傳》·《水滸拾遺》·《新水滸》·《水滸外傳》 등이 있다. 여기에서 소설 《三國志》는 제①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¹⁷⁾

17)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서명과 이명소설 연구>, 《중어중문학》 제73집, 2018년, 91-95쪽 참고.

4.1 서명의 작명 원리

小説 《三國志》는 ‘(通俗)演義’와 ‘三國志(史傳)’이라는 키워드를 근간으로 앞뒤에서 수식어가 첨가되며 다양한 서명을 만들어 냈다. 수식어의 첨가유형은 크게 판각시기·판각장소·插畫의 有無·내용의 출판방식 등 4가지로 분류된다.

1) 판각시기

판각시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새롭게 출간한다는 의미로 서명의 앞부분에 ‘新刻’: 《新刻考訂按鑒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新刊’: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新鐫’: 《新鐫京本校正通俗演義按鑑三國志傳》·‘新鐫’: 《新鐫校正京本大字音釋圈點三國志演義》·‘新鋟’: 《新鋟全像大字通俗演義三國志傳》 등의 어휘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가 새롭게 판을 판각하였다는 의미이다. 또 두 번 이상 거듭 출간했다는 의미로는 ‘重刻’: 《重刻京本通俗演義按鑒三國志傳》·‘二刻’: 《二刻按鑒演義全像三國英雄志傳》이라는 서명도 있다. 이러한 출간시기를 상징하는 수식어는 대부분 서명의 제일 앞부분에 나온다.

2) 판각장소

판각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京本’: 《新刊京本校正演義全像三國志傳評林》처럼 首都를 지칭하는 것과 ‘天德堂’: 《天德堂刊本李卓吾先生評三國志》처럼 출판사의 堂號를 서명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新刻京本按鑒考訂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처럼 ‘京本’이라는 어휘를 쓰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3) 插畫의 有無

서명 가운데 插畫의 유무를 나타내는 유형으로 보통 ‘全像’: 《新鋟全像大字

通俗演義三國志傳》·‘合像’:《新刻京本按鑑演義合像三國志傳》·‘繡像’:《第一才子書繡像三國志演義》·‘全圖’:《精校全圖足本鉛印三國志演義》·‘增像全圖’:《增像全圖三國志演義》·‘增像繪圖’:《增像繪圖三國演義》·‘繪圖’:《繪圖三國志演義第一才子書》·‘全圖繡像’:《精校全圖繡像三國志演義》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서명이 나오지만 결론은 그림이 들어있다는 의미일 뿐이다.¹⁸⁾

4) 내용의 출판 방식

서명의 작명 원리에서 이 부분이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校訂方式에 따라 ‘校正’:《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考訂’:《新刻考訂按鑑通俗演義全像三國志傳》 등의 서명이 나오는데 의미는 교정쇄와 원고를 대조하여 오타자와 문장의 배열 따위를 바르게 고치고 또는 내용상의 오류를 고증하여 바로잡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批評方式에 따라 ‘批評’:《新刻按鑑全像批評三國志傳》·‘批閱’:《李笠翁批閱三國志》·‘評林’:《新刊京本校正演義全像三國志傳評林》·‘旁訓評林’:《新刻音釋旁訓評林演義三國志史傳》·‘圈點’:《新鐫校正京本大字音釋圈點三國志演義》 등 다양한 수식어가 나온다. 批評은 그야말로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을 평하는 것이고, 批閱은 품평하여 가려내는 것, 評林은 評論을 모아서 실은 책, 旁訓評林은 옆에 올바르게 새겨 넣어 비평한 책, 圈點은 글이 잘된 곳이나 重要的 點 또는 글을 맺는 끝에 찍는 고리 모양의 둥근 점 따위를 의미한다. 모두가 다양한 비평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音釋’:《新鉅音釋評林演義合相三國史志傳》과 ‘大字音釋’:《新刻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通俗演義》가 있는데 의미는 어려운 말이나 틀린 말을 풀어서 설명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補遺’:《新刻京本補遺通俗演義三國志傳》은 보충하여 설명하고 빠진 곳을 채워 넣는다는 의미이며, ‘足本’:《精校全圖足本鉛印三國志演義》은 빠졌거나 삭제한 부분이 없는 완전한 책을 의미한다.

18) 삽화는 서두에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按鑑’: 《新刻湯學士校正古本按鑑演義全像通俗三國志傳》·《新刻京本按鑑演義合像三國志傳》은 역사서적 《自治通鑑》을 근거로 꾸미었다는 의미이고, ‘漢譜’는 바로 《後漢書》를 근거로 하였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소설 《삼국지》는 핵심어휘 ‘통속연의’와 ‘삼국지’를 중심으로 하여 앞뒤에 다양한 수식어가 첨가되어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

4.2 시대별 변화분석과 변경의 원인

至治年間(1321-1323)에 최초로 《三國志平話》가 출간된 지 약 70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小說 《三國志》는 수많은 변화를 보이며 진화하였다. 書名 또한 수백 종의 다양한 서명을 만들어 내며 변화하였다. 小說 《三國志》의 시대별 변화양상을 분석하면 크게는 4단계로 분류가 가능하다.

1) 平話本 時代

平話本 時代는 원대 至治年間에 《三國志平話》가 출간된 이래 나관중의 판본이 나오기 이전까지 즉 元末明初까지를 말한다. 《三國志平話》는 建安(지금의 建陽)에서 虞氏가 출간한 5종의 平話本 가운데 하나로 총 《全相平話武王伐紂書》·《全相平話樂毅圖齊七國春秋後集》·《全相秦併六國平話》·《全相平話前漢書續集》·《新全相三國志平話》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日本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 ‘平話’라는 書名이 붙어있다.

2) 志傳 · 演義系列 時代

志傳 · 演義 時代는 羅貫中의 240則이 소설이 나온 이후부터 120回的 李卓吾批評本이 나오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대략 元末明初에서 明末까지의 시대이다. 이 시대는 크게 演義系列과 志傳系列의 소설로 분류되는 시기이며, 建安 虞氏의 70則 시대에서 羅貫中의 240則 시대로 정착된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福建地域(志傳系列)과 江南地域(演義系列)의 치열한 출판경쟁이 이루어지던 시기이기에 매우 다양한 서명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3) 批評本 時代

批評本 時代는 대략 明末에서 淸初 毛宗崗本이 나오기 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명말 建陽吳觀明에서 刊行된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를 기점으로 鍾伯敬批評本 《鍾伯敬先生批評三國志》 그리고 淸初에는 李笠(李漁)批評本 《李笠翁批閱三國志》 등 다양한 비평본이 출현하였다. 서명 또한 '○○○先生批評(閱)三國志'로 다소 簡略化된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回目이 240則에서 120回로 재정비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4) 毛宗崗 通行本 時代

毛宗崗 通行本 時代는 毛宗崗이 1679년 醉耕堂에서 《四大奇書第一種》을 출간한 이후부터 시작된다. 나관중부터 시작된 내용변화가 모종강 부자에 이르러 일단락이 되었다. 모종강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출판을 하였다. 즉 《四大奇書第一種》·《第一才子書》·《貫華堂第一才子書》·《綉像金批第一才子書》·《三國志演義》·《三國演義》순으로 출간하였다. 모종강본이 출간된 후에 바로 천하통일을 한 것은 아닌듯하다. 한동안 다른 판본들과 출판 경쟁을 하다가 청대 중후기에 이르러 통행본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대 중후기에 출간된 서명을 살펴보면 대부분 모종강의 서명에서 추출된 '第一才子書'·'四大奇書'·'三國志'·'三國演義'·'三國志演義'의 단어가 들어간 서명으로 비교적 단순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4단계로 분류하여 시대별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三國志平話》가 출간된 이후 명대 40여 종, 청대 70여 종, 총 110여 종이 넘는 書名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각기 다른 수많은 서명이 출현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청대에 수많은 異名小説이 나온 이유는 중복으로 인한 차별

화·판권경쟁의 상업성·판매금지로 인한 대체 서명·전집이나 기획물 시리즈(例: 제1재자서)·소설의 진화에 따른 변화·외국어로의 번역에 따른 변화 등의 원인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설 《삼국지》의 경우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차별화와 상업성에 기인한다. 명대부터 본격화된 연의계열과 지전계열의 상권경쟁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탁오를 비롯한 저명인의 僞託으로 발전된 비평본 경쟁시대, 그리고 모종강 통행본으로 정착하기까지 치열한 경쟁은 수많은 異名小說들을 양산하였다. 특히 차별화만이 살길임을 잘 알고 있는 출판업자들은 서명부터 철저하게 다른 판본들과 차별화전략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유명인의 비평은 물론 또 圈點을 붙이고 교정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물·글자·그림 그 어느 것 하나 생략하거나 소홀함 없이 본서를 간행하였다. 독자들은 구매시 반드시 雙峯堂의 상표를 확인하기 바란다.”¹⁹⁾라는 건양의 저명한 출판업자 余象斗의 선전문 광고에서처럼 상권 확보를 위한 처절함과 절박함을 읽을 수 있다.

5. 結 論

小說 《三國志》는 元代 《三國志平話》가 나온 이후, 명대에는 40여 종이, 청대에는 70여 종이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판본들의 書名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대별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원대부터 시작된 《三國志平話》의 평화본 시대를 거쳐 본격적인 출발은 나관중의 《三國志通俗演義》부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대략 元末明初에서 明末까지이며 크게는 演義系列과 志傳系列로 분류되기에 一名 志傳·演義時代라 할 수 있다. 그 후 明末清初에는 비평본 시대로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鍾伯敬先生批評三國志》·《李笠翁批閱三國志》 등이 출현하였고 특

19) 김문경, 《삼국지의 영광》, 사계절출판사, 2002년. 204-209쪽 참고.

히 回目이 240則에서 120回로 재정비되며 내용은 물론 서명도 비교적 簡略化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은 모종강 통행본 시대로 대략 취경당에서 《四大奇書第一種》이 출간된 1679년 이후부터 청말까지를 지칭한다. 통행본으로 정착된 청대 중후기는 대부분 모종강의 서명에 근거한 ‘第一才子書’·‘四大奇書’·‘三國志’·‘三國演義’·‘三國志演義’ 등의 단어가 들어간 서명으로 단순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서명의 제작원리는 ‘三國志(傳)’과 ‘(通俗)演義’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뒤에 다양한 수식어가 첨가되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기본형인 新刊+校正+京本+大字+音釋+圈點(批評)+三國志(傳)+(通俗)演義 라는 서명처럼 일정한 원칙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서명의 출현은 다른 판본과 차별화하려는 출판업자들의 판권경쟁에서에서 시작되었는데 근본원인은 역시 통속소설의 상업성이라 할 수 있다.

또 書名은 한 판본에 하나의 題目만 붙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異名이 붙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標題·內題(卷首/卷末/目錄書名 等)·版心題 등 각기 다른 이명이 붙는 것이 非一非再하다.

< 參考文獻 >

- 嘉靖本(羅貫中), 《三國志通俗演義》, 北京大本.
 周曰校本,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 朝鮮覆刻本.
 毛宗崗本, 《四大奇書第一種》, 조선출판본(조선후기).
 劉龍田本, 《新鈐全像大字通俗演義三國志傳》, 嶺南大本.
 朱鼎臣本, 《新刻音釋旁訓評林演義三國志史傳》, 美國 하버드대.
 李卓吾本,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 日本 九州大本.
 《古本小說集成》, 《三國志平話》, 上海古籍出版社, 1984.
 孫楷第, 《中國通俗小說書目》, 臺灣: 廣雅出版社, 1984.
 毛宗崗本, 《毛宗崗評三國志演義》, 臺灣: 桂冠圖書公司, 1987.
 오순망 외 번역,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3.

- 周兆新 主編, 《三國演義叢考》, 北京大學出版社, 1995.
- 정원기, 《최근 삼국지연의 연구동향》, 중문출판사, 1998.
- 沈伯俊, 《三國演義新探》, 中國四川人民出版社, 2002.
- 김문경, 《삼국지의 영광》, 사계절출판사, 2002.
- 정원기 역, 《정역삼국지》, 현암사, 2008.
- 朝鮮活字本, 《三國志通俗演義》, 도서출판 학고방 影印本, 2010.
- 周文業, 《中國古代小說數字化隨筆》, 中國國學出版社, 2018.
- 陳翔華, <羅貫中原著書名非三國演義>, 《文史知識》, 1995. 5.
- 민관동 · 장수연 · 김명신, 《한국소장 중국통속소설의 판본목록과 해제》, 2013.
- 周文業, <三國演義書名研究>, 《12次中國古代小說·戲曲文獻暨數字化國際研討會論文集》, 2013. 8. 28.
- 閔寬東, <중국고전소설의 서명과 이명소설 연구>, 《중어중문학》 제73집, 2018.
- 周文業, <日本九州大學藏周鼎臣和三國演義簡本志傳小系列演化>, 《2019年第18次中國古典小說·戲曲文獻暨數字化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9. 8.
- <http://blog.sina.com.cn/liangguizhi176426>, 周文業 <三國演義書名研究>
- <https://www.nl.go.kr/korcis/>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 Abstract >

A Study about the Title of a Book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Min, Kwandong

Novel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was assumed to be publish in 40 types at Ming dynasty, 70 types at Qing dynasty since *SanGuoZhi Pinghua* emerge from Yuan dynasty. In order to analyze period by period, going through Pinghua version era of Yuan dynasty to end of Yuan dynasty, early Ming dynasty until end of Ming dynasty there was Yan-yi series and Zhi-zhuan series classified as Zhi-zhuan · Yan-yi era. Also, at the end of Ming dynasty and early Qing dynasty it goes on to criticism version era such as Lizhuowu

criticism version • Zhongbojing criticism version • lili criticism version and the list of 240chik(interpretation rules) were reorganized to 120 editions. Lastly, after the publication *Sida-qishu-diyi-zhong* at 1679 until end of Qing dynasty is designated as Mao Zonggang popular version era.

The title of a book production principle is that they based on keyword such as ‘SanGuoZhi(Zhuan)’ and ‘(Tongsu)Yan-yi’, and combine various modifier like publish time, place of publication, existence of illustration, way of criticism. The appearance of various title of a book starts from trading competition between publishers whom try to differentiate block printed book.

Key words: Novel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novel name, Yan-yi series, Zhi-zhuan series, Luo Guanzhong, Mao Zonggang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4. 14	2020. 05. 11 - 06. 01	2020. 05. 14	2020. 06. 01	2020. 06. 30

